

## 4년제 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청각장애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조사\*

김 경 화

건국대학교

---

### 《 요 약 》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통해 장애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문호가 넓어져 가면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사회 이동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은 직업지위의 획득에 학력이 중요한 지표라는 대중의 인식과 더불어 속칭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에 유리하다는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도구적 교육열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의 취업과 더불어 대학생활 적응은 장애학생들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청각장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경쟁해서 들어가야 하는 대학에서 얼마나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청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학에서의 대학생활 적응을 알아보고자 상위 100위권의 4년제 대학에서 한 학기를 보낸 청각장애대학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각장애신입대학생들의 전체적인 대학생활 적응은 보통이며, 하위 영역들 중에서 개인-정서 적응이 가장 낮았으며, 대학환경 적응이 가장 높게 나왔다. 개인 변인들에 따른 청각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장애 시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출신 고등학교 유형과 장애 등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주제어 : 청각장애대학생, 대학생활 적응, 1-100권 4년제 대학

---

\* 이 논문은 2014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서 대학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코스처럼 느껴질 정도로 보편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학년도 대학진학률은 고등학교 전체 졸업자 중에서 70.9%이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서는 78.7%가 대학에 진학하였다(교육통계서비스, 2014). 이는 OECD 국가들의 취학률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14). 이러한 풍조는 한국사회가 대학 입학이 단순히 고등교육에 입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학력이 사회적 지위와 신분 척도로서 일생동안 퇴화하지 않는 능력의 지표로써 따라다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강창동, 2007).

일반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청각장애학생들도 대학 진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대학진학률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으나, 1995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 실시된 이후로 꾸준히 장애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6년에 16개의 4년제 대학에 201명이 입학하였으나, 2014년에는 98개의 대학에 637명이 입학하였다.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6,976명이며, 지체/뇌병변장애학생은 3,996명(57.3%), 시각장애학생은 1,036명(14.9%), 청각/언어장애학생은 949명(13.6%)의 순으로 많으며, 이 세 장애 영역 학생들이 전체 장애대학생들의 86%를 차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렇게 많은 청각장애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연구들에 따르면(김경진, 2004; 이혜숙, 2010), 청각장애대학생들은 강의 및 강의 외 시간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각장애학생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청각장애학생들끼리 모인다고 해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농문화가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각장애학생들은 농과 일반학생의 이중 문화 속에서 심리적으로 많은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학습지원서비스의 미비로 인해 다른 장애학생들(시각장애, 지체장애)보다 교수 학습지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만족이 높았으며(권기창, 권승숙, 2011; 이효자, 이정현, 홍성두, 2011), 학업 적응도 가장 낮았다(김정은, 2013). 많은 청각장애학생들은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비장애대학생들보다 기초학력이 낮거나 대학에서 강의 내용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적 미달로 학사 경고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휴학 및 자퇴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김진호, 2004).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대학의 문호가 넓어져 가면서 학생들은 점차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김경화, 조현정, 2013; 박은혜 외, 2011). 이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사회 이동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김미란, 2004).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은 직업지위의 획득에 학력이 중요한 지표라는 대중의 인식과 더불어 속칭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에 유리하다는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도구적 교육열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 및 직업과 같은 가정배경 변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김성식, 2008; 변수용, 김경근, 2010; 황갑진, 2006),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금지현, 2013; 김영호, 김병찬, 2003; 이사라, 이주연, 2012; 조화진, 서영석, 2010; Strange, 2000; Toews & Yazedjian, 2007). 구체적으로 김영호와 김병찬의 연구(2003)에서는 580명의 전문대학생들의 아버지의 직업과 학력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그리고 대학생활에 대한 애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남학생들은 아버지의 직업과 학력에, 그리고 여학생들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남학생들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종일수록 그렇지 않은 상대들보다 훨씬 대학생활 적응이 좋았으며, 진로준비도 좋았다. 여학생일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훨씬 대학생활을 더 잘 적응한다고 나타났다. 금지현의 연구(2013)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일반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초기 청소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애착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대학생의 부모애착 관계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까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형성되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애착을 매개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학 입학 이전의 청소년들에게 현재의 학군과 입시제도 하에서 부모의 지원이 학력과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현실의 대학생들에게는 취업 준비, 어학 연수, 학비 등의 문제로 부모의 지원 없이는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이사라, 이주연, 2012; 조화진, 서영석, 2010).

대학 졸업 후의 취업과 더불어 대학생활 적응은 장애학생들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청각장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경쟁해서 들어가야 하는 대학에서 얼마나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쉽게도 청각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몇몇 한정된 소수의 대학들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권기창, 권승숙, 2011; 김경진, 2004; 백유순, 2005; 이혜숙, 2010; 이효자, 이정현, 홍성두, 2011), 상대적으로 경쟁해서 들어가야 하는 대학에서의 청각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서는 거의 알 수가 없었다. 또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학신입생들의 첫 해가 추후에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다닐 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Garrison-Wade & Lehmann, 2009; Toew., & Yazedjian, 2007), 대학신입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로 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청각장애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상위 100위권의 대학에서의 대학생활 적응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100위권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청각장애학생들의 인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상위 100위권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청각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은 어떠한가?

셋째, 청각장애학생들의 개인 변인들(성별, 출신고등학교유형, 장애등급, 장애시기)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201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통해 들어온 상위 100위권의 4년제 대학에서 한 학기를 보낸 청각장애를 가진 대학신입생들이다. 이렇게 연구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시기를 직전에 거친 청각장애를 가진 신입생이어야 한다.

둘째, 2년제 전문대학의 준비와 4년제 대학의 준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Garrison-Wade & Lehmann, 2009), 장애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청각장애를 가진 신입생들이 선택되었다.

셋째, 대학 진학 준비를 고려했을 때 전국의 190개의 대학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대학 준비가 필요한 대학교들을 선정하였다.

상위 100위권의 대학 선정을 위해서 2012학년도 기준으로 중앙일보 교육개발연

구소에서 제공하는 2012년 대학종합순위를 이용하여 1-30위의 대학교를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31-100위권은 편입학 학원에서 제공하는 국내대학순위를 바탕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최소한 3년 이상을 하신 3명의 교사들의 합의하에 선택되었다. 3명의 교사들의 대학 순위에 대한 의견 일치는 98%였다.

설문 대상 학생들을 찾기 위하여 먼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당 학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장애학생 수를 알아보았다. 상위 100위권의 4년제 대학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들은 58개교이었으며, 이 중에서 2012학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있는 대학교는 총 48개교이었으며, 입학한 장애학생 수는 총 403명이었다. 이 사이트에서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의 장애 영역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48곳의 대학교들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센터가 없을 경우)의 담당자의 연락처를 찾아내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에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설문지를 그대로 반송하거나 또는 아예 보내지 않음으로써 참여 거부를 나타낸 학교들은 총 5곳(Γ○대학교, ㅅㅅ여자대학교, ○ㅎ여자대학교, ○ㅈ대학교, ㅈㄴ대학교)이었다. 따라서 48곳의 대학교들 중에서 연구 참여를 거부한 5곳의 대학교들을 제외한 43개교의 장애학생지원 담당자 앞으로 설문지를 동봉주소를 포함해서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지원 담당자들이 필요시 설문지를 복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메일에 설문지를 첨부파일로 첨부해서 보냈다. 자료 수집은 2012년 9월 3일에서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7개교(표 1 참조)에서 총 6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미완성된 설문지의 3부를 제외한 총 60부를 자료 처리하였다.

<표 1> 상위 100위권의 4년제 대학들 중에서 설문지를 보낸 대학교명

구분	학교명 <sup>a</sup>
4년제 대학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공주대, 단국대, 대구대, 명지대, 목포대, 부산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조선대, 전북대, 창원대, 충북대, 한양대, 한국교통대

<sup>a</sup> 가나다순

## 2. 연구도구

본 검사 도구는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Baker와 Siryk(1984)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질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한 변준희(2011)연구의 대학생활 적응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Likert's scale)를 사용한 대학생활적응척도는 총 65문항으로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 적응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척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부권 소재의 A대학교에 201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4명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다시 수정하여 설문지를 최종화시켰다(예: 나는 강의에 어김없이 출석한다 => 나는 강의에 빠짐없이 출석한다). 변준희(2011) 연구에서의 대학생활적응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5이었으며, 하위척도는 .82에서 .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대학생활적응척도는 학업적응이 .84, 사회적응이 .84, 개인-정서적응이 .81, 대학환경적응이 .80이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4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2> 대학생활적응척도의 하위 영역과 신뢰도

상위요인	하위 요인	문항구성	Cronbach α
대학 생활 적응	학업 적응	3, 5, 6, 10, 13, 17, 19, 21, 23, 25, 27, 29, 32, 36, 39, 41, 43, 44, 50, 52, 54, 58, 62, 66	.84
	사회 적응	1, 4, 8, 9, 14, 16, 18, 22, 26, 30, 33, 37, 42, 46, 48, 51, 56, 57, 63, 65	.84
	개인-정서 적응	2, 7, 11, 12, 20, 24, 28, 31, 35, 38, 40, 45, 49, 55, 64	.81
	대학환경 적응	1, 4, 15, 16, 26, 34, 36, 42, 47, 56, 57, 59, 60, 61, 65	.80
	전체		.94

###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든 문항들의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성별(남자, 여자), 장애등급(2급, 3-6급), 그리고 장애시기(선천적, 후천적)에 따른 인식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출신 고등학교 유형(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따른 인식 차이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One-way ANOVA를 통해 집단 간의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Tukey(equal variance 가정에 부응한 경우) 또는 Dunnett's C(equal variance 가정을 위반한 경우)를 이용하여 인식 차이를 세부적으로 알아보았다.

### III. 결과

#### 1. 청각장애학생들의 인적 특성

상위 100위권의 4년제 대학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청각장애대 학신입생들의 기초적인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많았으며, 평균 나이는 21살이었다. 장애 등급은 2-3급이 가장 많았으며, 장애 발생 시기는 후 천적이 선천적보다 약간 많았다. 신입생들의 출신 고등학교는 일반학급 소속이 대부 분이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를 이용하여 대학 전공 분 류를 하였으며, 응답자들의 전공은 사회과학, 공학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청각 장애신입생들의 기초적인 인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청각장애학생들의 인적 특성

	구 분		빈도수(%)
	성별	남학생	27명(45.0%)
	여학생	33명(55.0%)	
나이 <sup>a</sup>	19-20	36명(60.0%)	
	21-22	20명(32.3%)	
	23-24	2명(3.3%)	
	28세 이상	1명(1.7%)	
장애등급 <sup>b</sup>	2급	24명(40.0%)	
	3급	19명(31.7%)	
	4급	6명(10.0%)	
	5급	4명(6.7%)	
	6급	3명(5.0%)	
장애시기 <sup>c</sup>	선천적	25명(41.7%)	
	후천적	32명(53.3%)	
출신고등학교유형 <sup>d</sup>	특수학교	9명(15.0%)	
	특수학급	3명(5.0%)	
	일반학급	46명(76.7%)	
	기타(검정고시)	1명(1.7%)	
대학 전공	인문학	2명(3.3%)	
	사회과학	34명(56.7%)	
	자연과학	5명(8.3%)	
	공학	11명(18.3%)	
	의료생명	3명(5.0%)	
	예술체육	5명(8.3%)	

<sup>a</sup> 무응답 = 1명(1.7%). <sup>b</sup> 무응답 = 4명(6.7%). <sup>c</sup> 무응답 = 3명(5.0%), <sup>d</sup> 무응답 = 1명(1.7%).

## 2. 청각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전체적인 대학생활 적응은  $M = 3.62$ ,  $SD = .52$  이다. <표 4>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영역들 중에서 개인-정서 적응이 가장 낮았으며, 반대로 학교환경 적응이 가장 높았다.

<표 4> 청각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하위 영역	<i>M</i>	<i>SD</i>
학업 적응	3.19	.44
사회 적응	3.28	.60
개인-정서 적응	3.01	.50
학교환경 적응	3.55	.58
전체	3.62	.52

## 3. 개인 변인들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

### 1) 성별

청각장애신입생들의 성별에 따른 전체적인 대학생활 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남학생  $M = 3.71$ ,  $SD = .41$ ; 여학생  $M = 3.40$ ,  $SD = .47$ ;  $t = 2.59$ ,  $p = .01$ ). <표 5>를 살펴보면,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도 학업 적응을 뺀 나머지 영역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5> 성별에 따른 하위 영역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하위 영역	성별	<i>n</i>	<i>M</i>	<i>SD</i>	<i>t</i>	<i>p</i>
학업 적응	남학생	27	3.30	.40	1.72	.09
	여학생	32	3.10	.46		
사회 적응	남학생	27	3.45	.61	2.11	.04*
	여학생	32	3.13	.56		
개인-정서 적응	남학생	27	3.15	.51	2.01	.04*
	여학생	32	2.89	.47		
대학환경 적응	남학생	27	3.75	.50	2.58	.01*
	여학생	32	3.38	.60		
전체	남학생	27	3.71	.41	2.59	.01*
	여학생	32	3.40	.47		

\*  $p < .05$

## 2) 출신고등학교 유형

출신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장애신입생들의 전체적인 대학생활 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특수학교  $M = 3.30$ ,  $SD = .51$ ; 특수학급  $M = 3.64$ ,  $SD = .33$ ; 일반학급  $M = 3.59$ ,  $SD = .47$ ;  $F = 1.42$ ,  $p = .25$ ). <표 6>을 살펴보면,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6>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하위 영역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하위 영역	출신 고등학교 유형	<i>n</i>	<i>M</i>	<i>SD</i>	<i>F</i>	<i>p</i>
학업 적응	특수학교	9	2.88	.41	2.99	.06
	특수학급	3	3.46	.15		
	일반학급	45	3.23	.45		
사회 적응	특수학교	9	3.06	.59	.70	.50
	특수학급	3	3.32	.38		
	일반학급	45	3.32	.62		
개인-정서 적응	특수학교	9	2.87	.69	.34	.72
	특수학급	3	2.90	.30		
	일반학급	45	3.03	.48		
대학환경 적응	특수학교	9	3.39	.70	.54	.58
	특수학급	3	3.55	.54		
	일반학급	45	3.61	.55		
전체	특수학교	9	3.30	.51	1.42	.25
	특수학급	3	3.64	.33		
	일반학급	45	3.59	.47		

## 3) 장애 등급

장애 등급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청각장애 영역에서의 중증 장애인의 분류에 따라 2급(중증)과 3-6(경증)으로 나뉘었다. 장애 등급에 따른 청각장애신입생들의 전체적인 대학생활 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2급  $M = 3.47$ ,  $SD = .36$ ; 3-6급  $M = 3.63$ ,  $SD = .54$ ;  $t = -1.24$ ,  $p = .22$ ). <표 7>을 살펴보면,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장애 등급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7> 장애 등급에 따른 하위 영역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하위 영역	장애 등급	<i>n</i>	<i>M</i>	<i>SD</i>	<i>t</i>	<i>p</i>
학업 적응	2급	26	3.13	.42	-1.34	.19
	3-6급	31	3.26	.45		
사회 적응	2급	26	3.22	.48	-.97	.34
	3-6급	31	3.37	.68		
개인-정서 적응	2급	26	2.92	.42	-1.29	.20
	3-6급	31	3.09	.57		
대학환경 적응	2급	26	3.51	.44	-.50	.62
	3-6급	31	3.59	.70		
전체	2급	26	3.47	.36	-1.24	.22
	3-6급	31	3.63	.54		

#### 4) 장애시기

청각장애학생들의 장애 시기는 태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태어나기 이전에 발생되었으면 선천적, 이후에 발생했으면 후천적이라고 명명하였다. 청각장애신입생들의 장애시기에 따른 전체적인 대학생활 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선천적  $M = 3.38$ ,  $SD = .48$ ; 후천적  $M = 3.15$ ,  $SD = .38$ ;  $t = 2.00$ ,  $p = .05$ ). <표 8>을 살펴보면, 각 하위 영역에 대한 대학 순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도 사회 적응을 뺀 나머지 영역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8> 장애시기에 따른 하위 영역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하위영역	장애시기	<i>n</i>	<i>M</i>	<i>SD</i>	<i>t</i>	<i>p</i>
학업 적응	선천적	25	3.32	.45	1.83	.07
	후천적	32	3.10	.44		
사회 적응	선천적	25	3.51	.54	2.67	.01*
	후천적	32	3.10	.60		
개인-정서 적응	선천적	25	3.04	.61	.46	.65
	후천적	32	2.98	.43		
대학환경 적응	선천적	25	3.65	.69	1.13	.26
	후천적	32	3.47	.51		
	선천적	25	3.38	.48	2.00	.05*
	후천적	32	3.15	.38		

\*  $p < .05$ , \*\*  $p < .01$

## IV. 논의

### 1. 논의

본 연구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청각장애신입생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학에서의 대학생활 적응을 알아보고자 상위 100위권의 4년제 대학에서 한 학기를 보낸 청각장애대학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신입대학생들의 전체적인 대학생활 적응은 보통이며, 하위 영역들 중에서 개인-정서 적응이 가장 낮았으며, 학교환경 적응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학년의 청각장애학생들만이 있는 연구는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학년과 지체장애학생, 시각장애학생, 그리고 청각장애학생들을 포함한 김자경, 강혜진, 김주영(2007)의 연구에서 53명의 청각장애학생들의 결과만 도출하여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김자경 외(2007)의 연구에서는 학업 적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고 학교환경 적응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조현진과 박재국(2013)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조현진과 박재국(2013)의 연구는 장애학생복지지원 실태조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21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학년을 포함한 청각장애학생, 시각장애학생, 그리고 지체장애학생들 중에서 63명의 청각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결과 개인-정서 적응이 가장 낮았고 대학환경 적응이 높았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유정이, 김수리, 2008; 이숙정, 2011, 정영숙, 김수빈, 2014), 대학생활 적응에서 개인-정서 적응은 우울,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청각장애학생들이 다른 장애학생들 및 일반학생들에 비해 더 우울증이 높다고 보고하였다(김자경, 강혜진, 김주영, 2007; 윤민우, 황경열, 2014; 이은선, 유환조, 석동일, 2005). 그리고 연구(윤민우, 황경열, 2014; 정영숙, 김수빈, 2014; 황상하, 1995)들에서 신입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다른 학년별에 비해서 높고 적응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청각장애신입대학생들의 개인-정서 적응이 낮음에 대해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며, 대학에서의 적극적인 학생 상담 및 정서·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청각장애신입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전체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대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위 영역에서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학업 적응을 뿐 나머지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 적응, 대학환경 적응에서 훨씬 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학년의 청각장애학생들만이 있는 연구는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는 없으나 이정우와 최성규(2015)와 석말숙과 강동욱(2005)의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정우와 최성규(2015)는 전체 학년의 청각장애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석말숙과 강동욱(2005)은 청각장애학생, 시각장애학생, 지체장애학생들을 모두 포함한 연구 결과에서 성별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사회적응이 더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일반학생들의 연구에서도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를 보면 여학생들이 학업 적응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남학생들보다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정미, 김수리, 2008; 예기훈, 김세진, 2014).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여학생이 학업 동기가 높지만 남학생에 비해 학업 불만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적응 수준 차이가 어떤 요인에서 비롯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좀 더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각장애신입대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전체적인 대학생활 적응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하위영역들 중에서 학업 적응은  $p = .056$ (표 6에서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p = .06$ 으로 표시) 으로 거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일반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특수학교 출신의 학생들보다 학업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청각장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학업 적응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어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학년 구분 없이 시각장애학생, 청각장애학생 그리고 지체장애학생들을 포함한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정은(2013)의 연구에서는 일반학교 출신의 장애대학생들이 특수학교출신의 장애대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학업 적응을 더 잘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상위 100위권의 4년제 대학의 1학년 청각장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출신 고등학교 유형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비슷한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더 많이 연구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청각장애신입대학생들의 장애등급에 따른 전체적인 대학생활 적응 및 하위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전체 학년을 포함한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김자경 외(2007)와 윤민우와 황경열(2014)의 연구 결과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를 보였다. 즉, 중증일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정우와 최성규(2015)의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과 의사소통양식간의 관계 연구에서 1-2등급을 가진 청각장애학생들이 3-6등급을 가진 청각장애학생들보다 자아정체감과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섯째, 청각장애신입대학생들의 장애시기에 따른 전체적인 대학생활 적응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선천적 청각장애학생들이 후천적인 청각장애학생들보다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영역 중

에서 사회적 적응에서 선천적 청각장애신입대학생들이 후천적 청각장애신입생들보다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학년의 청각장애학생들만이 있는 연구들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는 없으나 지체부자유, 청각장애, 시각장애를 포함한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들(김자경, 강혜진, 김주경, 2007; 이경립, 박재국, 2007; 이웅, 이주희, 이한나, 2011)에서는 장애시기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청각장애대학생의 정체감·농문화·장애인식에 대한 배경변인별 분석과 구조관계를 연구한 최성규와 김은정((2015)에 따르면, 선천성 청각장애대학생이 후천성 청각장애대학생들보다 정체감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자아정체감은 대학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계(이웅, 이주희, 이한나, 2011)를 고려할 때, 선천적 청각장애신입생이 후천적 청각장애신입생들보다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이 연구 결과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하기에 이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상위 100위권의 4년제 대학들이 전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 대체로 많은 대학들이 연구에 도움을 주려고 하였으나, 몇몇 대학 장애학생지원 담당자들은 장애지원 말고도 담당하고 있는 다른 업무들로 인해 연구 참여하기를 거절하였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대학 내에서도 모든 청각장애 장애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 장애지원담당자들은 장애학생들 중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사실을 남에게 노출하는 것이 싫어 설문지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설문을 통한 자기 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강창동 (2007). 한국 대학입시제도의 사회사적 변천과 특징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8, 83-113.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4). **201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서울: 교육부.
- 교육통계서비스 (2014).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서울: 교육통계연구센터
- 금지현 (2013). 초등교육진공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애착의 관계. **한국초등교육**, 24(2), 45-57.
- 권기창, 권승숙 (2011). 장애인의 고등교육 학습요인에 따른 학업성취도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6, 123-138.
- 김경진 (2004). 청각장애 대학생의 문화 실태 연구. **언어치료연구**, 13(4), 23-39.
- 김경화, 조현정 (2013). 명문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 실태조사. **특수교육학연구**, 48(2), 219-243.
- 김미란 (2004). 교육기회의 메리트크라시 구조: 대학 유형과 서열별 진학기회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0, 1-21.
- 김성식 (2008). 학생 배경에 따른 대학진학 기회의 차이: 성별, 가정배경, 지역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2), 27-47.
- 김영호, 김병찬 (2003). 공업계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관련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2(3), 21-42.
- 김자경, 강혜진, 김주영 (2007).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4), 461-476.
- 김정은 (2013). 장애대학생의 학업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 요인 분석. **학습장애연구**, 10(3), 159-179.
- 김진호 (2004).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 분석. **인문과학논총**, 13, 119-136.
- 박은혜, 박재국, 신현기, 최성규, 최종근, 손지영, 최승숙, 채지은, 이효정, 박지연, 원성욱 (2011).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백유순 (2005). 장애 대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서비스요구 및 지원실태와 만족도 조사: 청각장애대학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151-169.
- 변수용, 김경근 (2010). 한국사회 고등교육 계층화의 영향요인 분석: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연구**, 20(1), 73-102.
- 변준희 (2011). **자의식과 학업불안이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석말숙, 강동욱 (2005).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171-194.
- 유정이, 김수리 (2008). SOC 전략과 대학생활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11-1225.
- 윤민우, 황경열 (2014). 장애대학생의 열등감과 대학생활부적응이 사회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4), 121-140.
- 예기훈, 김세진 (2014). 성별에 따른 안경광학과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과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시과학회지**, 16(4), 433-444.
- 이사라, 이주연 (2012). 아동기 아버지에 대한 애착, 성인기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0(4), 1-10.
- 이숙정 (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2), 235-253.
- 이은선, 유환조, 석동일 (2005). 청각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CDI 비교.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6(3), 213-227.
- 이혜숙 (2010). 청각장애 대학생의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13, 243-274.
- 이정우, 최성규 (2015).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과 의사소통양식간의 관계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9(4), 1-26.
- 이효자, 이정현, 홍성두 (2011).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지원권에 대한 장애 대학생의 인식 조사 :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연구**, 6(1), 25-43.
- 정영숙, 김수빈 (2014). 대학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자기자비와 대처전략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4), 117-140.
-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조현진 박재국 (2013). 장애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특수교육학연구**, 47(4), 227-249.
- 최성규, 김은정(2015). 청각장애대학생의 정체감·농문화·장애인식에 대한 배경변인별 분석과 구조관계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2), 405-423.
- 황갑진 (2006). 교육현상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가정환경의 영향: 대학서열과 입시교육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3(3), 69-92.
- 황상하 (1995).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arrison-Wade, D. F., & Lehmann, J. P. (2009).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transition to community college.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33, 415-443.
- Strange, A. (2000). Predictors of college adjustment and succes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Southeast-Asian american, Hispanic, and White students. *Education*, 120(4), 731-742.
- Toews, M. L., & Yazedjian, A. (2007).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College Student Journal*, 41(4), 891-900.

## College Adjustment of Freshmen with Hearing Impairments and Deaf Admitted through Special Admission in 4 year College

Kim, Kyeong-Hwa

Konkuk University

### <Abstract>

Along with that college attendanc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become more universal, there is an increasing attention to which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attend. Since higher education is recognized as being very important to economic and social mobility in modern society, the prestige of one's alma mater become more significant. Also, research indicates that many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and deaf who complete high school and pursue postsecondary education experience difficulty remaining in and completing postsecondary programs. However, this concern is mostly drawn from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and deaf attending mass universities or less selective universities. Considering mor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and deaf will go to higher education and postsecondary schooling sorts masses of youth for vastly different occupational and social opportuniti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hey are doing in these universities. Therefore,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identif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and deaf entering competitive colleges and to examine how they were doing in these universities. To fulfill the purposes of the study, the survey was implemented toward freshmen with hearing impairments and deaf admitted through special admission among the top 1-100 4-year colleges. According to the results obtained from 60 surveys, the participants reported they were adapted neutrally. In addition, the lowest subarea among the four college adaptation areas was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personal variables such as type of high school and level of sever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ch personal variables as gender and occurring period of disability.

**Key Words :** freshmen with hearing impairments and deaf, college adjustment, top 1-100 universities

논문 접수: 2015. 08. 05 심사 시작: 2015. 08. 12 게재 확정: 2015. 09. 02